

# 장중 시황 코멘트

유안타 투자전략팀 박성철

02 3770 3632 / seongcheol.park@yuantakorea.com

## ■ 5/12(월) 장 중 시황 (10:30분 기준)

- KOSPI는 +0.6% 상승한 2,591.7pt를 기록 중. KOSDAQ은 +0.5% 상승한 725.9pt를 기록 중
- 일본(+0.3%), 대만(+1.1%)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강세. 미국 증시 Mini 선물 급등(S&P +1.4%, 나스닥100 +2.0%). 주말 간 진행된 미중 관세 협상에 대해 미중 실무진 모두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평가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 개선된 것이 원인
- 거래소 기준 24개 업종 중 18개 업종 상승. 증권(+4.2%), 종이/목재(+4.4%), 건설(+4.2%) 업종이 강세. 반면 제약(-3.0%), 음식료/담배(-0.8%), 오락/문화(-0.7%) 업종이 하락
- 국내 증시는 미중 관세협상 진행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과 더불어 금일 시작된 대선 공식선거운동에 영향받는 모습. 이재명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 판교, 동탄, 대전 등에서 반도체 및 과학기술을 주제로 유세 예정. 정책 수혜 기대감에 반도체 및 AI 관련 종목 강세(삼성전자 +0.6%, SK하이닉스 +2.3%, 폴라리스AI +16.9%, 포바이포 +5.1%). 자사주 소각 공약 기대감 다시 증가하며 증권 업종 급등(신영증권 +6.2%, 유진투자증권 +7.2%, 미래에셋증권 +6.9%). 반면 방산, 조선 종목에서 수급 이탈하며 동반 약세(한화시스템 -5.7%, 현대로템 -7.3%, 한화오션 -1.8%, HD한국조선해양 -1.8%)
- 한편 미국 행정부의 정책 관련 뉴스플로우로 금일 원전주 상승, 헬스케어 업종 하락. 외신이 미 행정부가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(96.7GW → 400GW)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. 원전 밸류체인 관련 종목 급등(두산에너지빌리티 +6.5%, 한전산업 +4.5%, 현대건설 +6.8%), 헬스케어 업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가격 30%~80% 인하 행정명령에 12일 서명할 것이라고 시사하며 급락(삼성바이오로직스 -3.5%, 셀트리온 -3.4%). 구체적인 인하 방법 및 적용 범위는 미공개
- 원/달러 환율은 달러당 1,398.0원을 기록하며 1,400원 수준에서 횡보 중.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.33% 기록하며 보합세. 10년물 금리는 2.67% 기록하며 보합세. 국고채 금리는 개장 이후 2bp 수준 상승 출발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

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(작성자: 박성철)

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